

< 동정자료 >

## 박선호 1차관, “한·영 스마트시티저탄소화 등 협력 확대 기대” 20일 영국 기업에너지부 차관 만나 스마트시티, 탈탄소화정책 등 협력 논의

-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20일(목), 알렉스 치شم(Alex chisholm) 영국 기업에너지부 차관을 만나 양국 간 스마트시티, 저탄소화 정책 등 다방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.
- 양국은 작년 9월 스마트시티 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체결하고, 세종 등 한국의 선도도시를 영국왕립표준협회가 ‘스마트시티 국제 표준’으로 인증하는 등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.
- 박 차관은, “한국은 파리협정 이후 교통과 건축물 분야 탄소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,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·전기차 인프라 확대 등 저탄소화 정책에 있어 영국과 성공 사례 공유 등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.”고 밝혔다.
- 이날 만남에서 양국은 스마트시티 분야 ‘한·영 과학기술협력 공동 위원회’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오는 3월 서울에서 제1차 공동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.
- 영국 기업에너지부 차관은 “영국은 2035년까지 가솔린·디젤차량의 판매를 종료하는 과감한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, 수소경제, 건축물 등에서 선도국가인 한국과 협력을 기대한다.”고 말하며
- “특히 올해는 6월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가 개최되고, 11월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6)가 개최되는 등 전세계 저탄소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인만큼 한국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.”고 밝혔다.

2020. 2. 20.

국토교통부 대변인